

「세계 5대 군사강소국과 한국의 자주국방」

김재엽 지음 | 북코리아 펴냄 | 584쪽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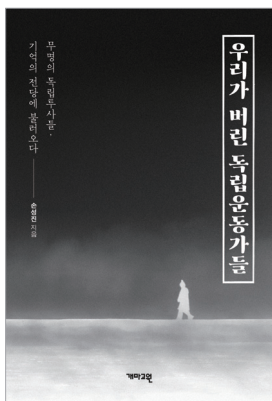


저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선량한 자가 무자비한 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의 몰락은 불가피하다.”란 문장을 인용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무엇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영원한 약소국’은 없으며 주인의 식을 갖고 자주국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속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얼마 전 한국군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또한 신형 탄도미사일도 개발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력, 국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5개국의 자주국방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정한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과 보호에 수동적으로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있는 이스라엘,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대만 등 5개 강소국들을 살펴본다. 군사력 건설과 발전의 역사, 안보환경, 군사력 현황, 전략, 방위산업, 현재 맞닥뜨린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들을 기준으로 이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가 버린 독립운동가들」

손성진 지음 | 개마고원 펴냄 | 288쪽 | 15,000원



일제 강점기에 눈물과 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윤봉길, 안창호, 유관순 등 몇몇 낯익은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르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독립운동가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이념의 문제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는 언급조차 힘들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문제도 있다. 박용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한때 친했던 이승만과 절연하며 해방 후 업적이 덜 알려지게 됐다. 또한 자료 부족과 업적을 알릴 후손의 부재도 현실적인 이유다. 독립운동가 집안 대부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유지되지 못해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기록은 더 찾기가 어렵다.

이 책은 우리가 잘 모르는 20명의 독립 운동가를 소개한다. 이재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떠올릴 테지만, 매국노 이완용을 일격해 위기에 빠뜨린 독립운동가 이재명도 있다.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가 된 의병장 허위부터 박은식 선생을 이은 독립운동사가 김승학까지 차례대로 읽다보면 어느새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오롯이 느끼며 다시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김명락 지음 | 슬로디미디어 펴냄 | 196쪽 | 14,800원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패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하였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지만 밀려오는 인공지능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저자는 오랜 시간 인공지능을 연구해왔고,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했으며, 또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우리 일상 속에 활용된 다양한 인공지능은 물론 인공지능과 통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적용과 성과평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관점으로 일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알기 쉽게끔 서술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바닷물예, 인공지능을 거대한 상어에 비유하며 빅데이터 생태계가 태평양처럼 커지면 인공지능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과와 영향력은 커진다고 말한다.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해도, 그 기능을 이해하며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나간다면 누구나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혼밥 판사」

정재민 지음 | 창비 펴냄 | 236쪽 | 15,000원



어느새 '혼밥' 열풍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그 배경으로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전환, 1인 가구의 증가, 전투하듯 하는 현대 사회생활의 피로도로 인해 혼자 있고 싶은 욕구 등을 꼽은 바 있다. 이 책은 혼밥을 통해 마음에 위안을 얻었노라 고백하는, 고독하지만 인간미 가득한 한 판사의 이야기다.

'혼밥'을 즐기는 저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모락모락 온기 가득한 곰탕을 마주하고, 달큰한 양념에 재워진 돼지갈비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판사를 그만둔 뒤 현재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삶과 추억 속에서 꼬집어낸 음식들을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다. 판사 시절 맡았던 다양한 사건과 사연도 녹아 있다.

저자는 판사로 일할 때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이혼을 시킨 뒤 누굴 만나 편하게 웃을 기분이 아니어서 그저 혼자 골목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다고 토로한다. 음식과 함께 공소장과 재판 기록이 말해주지 않는 쓰라리고 슬픈, 또 달콤하고 그리운 내밀한 인생의 장면들을 만나보자. 내 영혼을 어루만졌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이야기 속 사건판결 과정 등을 따라가며 공격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이다.